光州日報

제17534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6년 8월 24일 (음력 7월 1일) 목요일

지난 2004년 12월 광주비행장 활주로에서 촬영한 패트리어트 미사일Ⅲ의 이동식 발사차량. 광주에 주둔하고 있는 미8군 방공여단 방공대대는 연내 광주에서 철수할 예정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패트리어트 부대' 광주 떠난다

反美정서 영향…年內 대구 인근 지역으로 완전 이전

지난 2004년 11월 30일부터 광주 공군부대에 주둔해온 주한 미군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가 연내 대구 인근 지역으로 완전 이전한다.

〈관련기사 3면〉

22일 공군 부대 등에 따르면 패트리어트 미사일Ⅲ 16기와 450여 명으로 구성된 미 8군 방공여단 방공대대가 최근 주둔지인 광주 공군부대를 떠나 대구 인근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미사일 주변 기기 등 장비 일부는 이미 철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군 측은 현재까지 명확한 이전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광주지역의 반미(反美) 정서가 주된 이유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에 광주공항 내 주둔지가 비좁아 내무반 건물 등을 신축할 수 없어 부대원들이 천막 등을 치고 야전생활을 하는 등 열악한 환경도 광주 철수의 배경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10일에는 야전 훈련장에서 이 부대 소속 헤수스 나예라(Jesus Najera·19)일병이 벼락을 맞고 숨졌으며, 함께 근무 중이던 다른 3명의 미군도 부상을 입었다.

이와 관련, 부대장인 블랙 미 육군 중령은 최근 광주지역 한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올 연말 안에 부대를 완전 철수시킨다. 광주의 2개 중대와 군산의 1개 중대 전 병력과 보유중인 미사일 및 운용체계와 지원장비 일체를 대구 인근 지역으로 옮길 예정이다"면서 "광주를 떠나는 이유는 전략적 판단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주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는 주둔 당시 국내 반전단체와 대학생, 노동자 등이 치열한 주둔 반대 시위를 벌인 이후에도 15명 안팎의 시위대가 매주 금요일 18개월 동안 98차례 부대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여 경계태세를 유지해 왔다.

이 때문에 광주 패트리어트 부대 미군 병사들은 주말과 휴일에도 광주 시내 외출이 엄격히 제한돼 왔으며, 특히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돼있는 장교들도 광주에서만큼은 모두 영내 생활을 하도록 해왔다.

익명의 부대 관계자는 "반미 정서가 심하다는 정보 때문에 병사들은 광주 도심 외출을 스스로 꺼렸으며, 단체로 버스를 타고 오산에 가서 주말을 보내고 오는 병사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호남고속鐵 2017년 완공

광주~오송 구간 2015년까지…남공주·정읍역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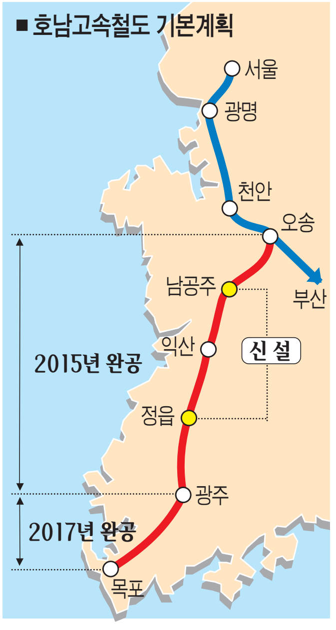
건교부, 기본계획 확정

오송~광주 구간은 2015년까지, 광주~목포 구간은 2017년까지 완공하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확정된 기본계획안에는 호남고속철도 전 구간 동시 착공 및 동시 완공,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이란 광주·전남지역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또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남공주역과 정읍역 신설 문제는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안에 반영됐다.

건설교통부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오는 2017년까지 오송~목포간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이 SOC 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30일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역으로 선정된 오송에서 목포까지 총 230.9㎞에 이르는 호남고속철 건설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우선 오송~광주 구간 건설에 착수해 2015년까지 완공한 뒤, 광주~목포 구간은 오송~익산 구간 완공 전에 착공, 201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호남고속철도의 착공시기를 오는 2009년 3월로 잠정 계획하고 있어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 착공이라는 광주·전남지역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호남고속철도의 총 사업비는 10조5천417억원이며 사업비는 국고와 철도시설공단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정차역은 당초 오송·익산·광주·목포역에서 남공주·정읍역이 추가돼 총 6개역으로 늘어났다. 중간 정차역 신설비용의 20%는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정부는 호남고속철도에 1편성 10량 총 360량의 차량을 투입해 오송~목포 구간을 60분, 서울~목포 구간은 106분에 운행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논란을 겪었던 대전, 대구 도심구간 통과방식은 철도 안전성과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감안해 기존 지하 노선에서 지상 노선으로 변경됐으며, 오송, 김천·구미, 울산역 등 중간역도 추가됐다.

또한 경부고속철도의 서울~부산 노선 거리는 계획 변경 전 412㎞에서 418.7㎞로 늘어나게 됐으며 운행시간도 116분에서 130분으로 14분이 증가하게 됐다. /최진만 기자 man21@

알림

지하철 역에서 만나는 미술 꿈나무들의 작품

제51회 호남예술제 입상작 전시회

9월 1일부터 한달간 광주지하철 금남로 5가역

지난 5월 열렸던 **광주일보사** 주최 제51회 호남예술제의 미술부문 입상작품들이 지하철 금남로 5가역에서 시민 여러분을 만납니다.

문화수도 광주를 이끌어 갈 미술 꿈나무들의 소질이 유감없이 발휘된 입상작품들은 기성 화가들의 작품에서 볼 수 없는 자유로운 표현과 발랄한 감성으로 시민 여러분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미술 꿈나무들에게 시민들의 미술사랑을 전하고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

- 전 시 작 : 초·중·고등부 최고상·금상·은상 수상작 537점, 유치부 우수상 65점
- 장 소 : 광주 지하철 금남로 5가역내 전시공간
- 기 간 : 9월 1일 ~ 30일
- 문 의 : (062)220-0541

• 주 최 : **광주일보사**

• 협 찬 : INFOREX

영등위·게임개발원 전격 압수수색

檢, 영등위원 등 10여명 출금…곧 소환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3일 '바다이야기' 등 게임 심사를 맡았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와 경품용 상품권 지정 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영등위 등 주요 관계자 10여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출국금지하고 사행성 게임기 관련업체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 검찰 수사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검찰은 이날 수사관 50여명을 두 기관에 보내 게임기와 상품권 지정 신청서류와 결과 보고서, 문화관광부 및 업체와 주고 받은 공문, 컴퓨터 등과 회계 장부를 확보했다. 검찰은 두 기관에서 압수한 자료를 정밀 분석한 뒤, 조만간 바다이야기 제작사인 에이원비즈, 판매사인 지코프라임 등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또 영등위 관계자를 출국금지한 데 이어 이들을 대상으로 조만간 소환 조사를 벌여 정치권 외압이 있었는지와 게임기 업체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날 바다이야기 제조·판매사가 거둬들인 900억원의 순익 가운데 예금과 부동산 등으로 남아있는 500억원 안팎에 대한 법원의 추징 보전 허가를 받음과 함께, 이들 업체들이 벌어들인 수익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정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 가압류 조치를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